

순창군, 소공인집적지구 공동시설 구축 지원

중소벤처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19억 등 40억 투입 민속마을 장류특구 '전통발효식품집적지구' 선정도

순창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소공인 집적 지구 공동기반 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또 민속마을 장류 특구 일대가 '전통발효식품 집적 지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들이 모인 지구를 집적 지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공동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현재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은 한국의 대표 장류 특구로서 명성을 이어오고 있지만 1997년에 조성돼 시설이 노후화되고 조사자들의 고통으로 현재 보유하는 공간 내에서 보관시설 확장 및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제품 개발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국비 19억원, 도비와 지방비 21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순창을 백

산리 805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457㎡ 규모로 공동기반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제조 생산시설(소포장 및 소스 제조시설 등)을 비롯해 공동 저온·냉동 창고, 물류 집하장, 교육 및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시설 주변에는 장류연구소,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같은 연구기관과 체험관광지원인 장류체험관, 발효 소스 토굴 등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보관 창고를 규모별로 확대, 조성·임대함으로써 민속마을 장류 특구 내 소공인들의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품 포장 다양화, 소스 상품화 등을 통해 전통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맛있



순창읍 백산리 일원에 조성될 공동기반시설 조감도.

고 편리한 장류, 건강한 소스로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은 신사업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2세대의 경영 참여를 유도해 장류 특구의 지속적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건 순창군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이번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계기로 소공인 조직화와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전북도, 투자유치 촉진·군산지역경제 활성화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16만5000㎡ 추가 매입

전북도가 새만금산업단지(사진)의 투자유치 촉진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산단 내 장기임대용지를 추가 매입해 공급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16만5000㎡(5만평)를 추가 매입한다. 이로써 지난해 이후 새만금산단에 총 66만㎡(20만평)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에 추가 매입하는 임대용지 16만5000㎡는 2019년 분예산으로 확보한 33만㎡ 중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수시 배정한 국비 136억원과 지방비 34억원을 더해 총 170억원으로 전북도가 국가(새만금개발청)·군산시와 함께 새만금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것이다.

새만금산단 임대용지는 새만금사업법의 개정으로 올 4월 1일부터 국내기업에게도 외국기업과 같이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약 1300원/㎡)가 적용되고, 최장 100년간 입주 가능하여 최근 많은 국내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확대·공급은 국내·외 유망기업의 새만금산단 입주 촉진과 함께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해 장기임대용지가 공급된 이후 기업들의 투자협약 체결 건수와 새만금산단 입주 희망기업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후 투자협약 총 23건 중 올 8월 말 현재까지 임대용지 투자협약 체결건수



는 21건으로 면적 159만㎡(48만평), 투자액 1조195억원 규모이다.

이승희 전북도 새만금사업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투자협약 기업의 조속한 입주를 독려하고, 이미 투자협약을 체결한 면적이

확보 면적을 초과한 상태로 임대용지 조성 추가 정부예산 확보와 새만금산단 투자유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노후경유차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비 38억원 확보

군산시가 노후경유차 등과 관련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해 38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산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등 운행차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사업비를 신속히 집행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노후경유차 140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133대에 대해서는 매년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나선다.

더불어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전기이륜차 30대 및 전기화물차 5대도 신규로 보급한다.

또 가을·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 2000만원을 들여 노면 청소용 살수

차를 운영하고, 관내 산업단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축적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입해 환경감시용 드론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때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정책에 부응하고자, 2억원의 예산으로 환경부 및 전북도와 연계되는 단속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건설형입체와 전북도 환경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등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북도 2019년 상반기 미세먼지 저감관련 업무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해남군, 지역 현안사업 추진 '탄력'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비 등 국비 18억원 확보

해남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해 민선 7기 해남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원과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사업 5억원, 화원 화봉리 제방 보수보강 3억원 등 3개사업이다.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여가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인프라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작은영화관과 함께 신축돼 효율적 사업추진은 물론 운영 활성화를 도모

하게 됐다.

내년 말 준공 및 개관 예정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23억원을 비롯해 총 사업비 48억 여원이 투입된다.

해남군 보훈회관은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993년 건립된 현 보훈회관은 노후화되고 협소해 일부 보훈단체는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해 왔다. 현재 신축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시설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그 동안 명현관 군수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균형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이들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해 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신안군, SK렌터카 차고지 유치 총력

신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K렌터카 차고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군은 어려운 세입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렌터카 차고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렌터카 차고지를 유치하고자 군 유휴 주차장과 폐교부지 등에 확보한 약 20만㎡와 낮은 임대료 등을 SK네트웍스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계약에 성공했다.

최근 공영차고지 2만㎡ 임대계약을 시

작으로 2022년까지 약 5만대의 렌터카를 등록할 계획이다.

군은 차고지 임대료, 자동차 취득세·등록 수수료, 자동차세 등을 통해 3년간 약 550억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렌터카는 일반 차량과 달리 4~5년이 지나면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해마다 신규 렌터카 등록을 할 수 있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정음 배' 16t 베트남 수출 상차식

정음시의 특산물인 고품질 '정음 배'가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다.

정음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베트남에 '정음 배'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수출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한 수출 상차식이 열렸다.<사진>

정음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린 이날 상차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배공선희 참여 농가와 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친환경 정음 배를 베트남으로 수출해 교민들과 현지인에게 맛있는 정음 배 맛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출하게 될 배는 첫 수출 12t에 이어 약 16t, 금액으로는 3400만원에 이른다.

시는 해외 판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 정음시 관계자와 정음조공 대표, 배·로마토 생산 농가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등의 대형매장을 방문한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